

자료제공 : 2024. 7. 3.(수)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서울관광재단 관광산업본부

관광정책과장	권명희	02-2133-2805
관광정책팀장	이재화	02-2133-2807
서울관광재단 관광산업본부장	함경준	02-3788-8181
서울관광재단 관광자원개발팀장	금창훈	02-3788-8178

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 5쪽

'서울달' 항공기술원 안전성 인증 획득, 8.22.(목)까지 시범운영

- 여의도공원 '서울달' 항공안전법 의거 비행성능·안전관리 등 총 56개 항목 안전성 인증 획득
- 열기구와 다른 비인화성 가스기구, 지면과 연결된 케이블로 수직비행...시민 이용 안전 강화
- 8.22.(목)까지 시범운영 진행 서울시민 2,500명 초청, 사전 이용 의견 수렴하여 8.23.(금) 정식개장
- 개장 기념 여의도공원 매력정원 조성...관목 5,000여본 추가 식재로 공원녹지생태 보존까지

여의도 상공에 떠오른 가스기구 '서울달'에 시민들의 관심이 주목된 가운데 서울시는 「항공안전법」에 의거한 안전성 인증을 완료하고 8월 22일(목)까지 무료체험 시범운영 후 23일(금)부터 정식개장(유료탑승)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서울을 대표하는 야간관광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지난 6개월간 유럽·미국 등 글로벌 안전 규정·규격을 준수한 계류식 가스기구 '서울달'을 여의도공원에 설치했다.

'서울달'은 헬륨의 부력을 이용해 수직 비행하는 가스기구로서 서울시는 「항공안전법」 제124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에 따라 항공기술

원으로부터 비행성능, 안전관리 등 총 56개의 항목에 대해 지난 한 달 동안 철저히 점검받고 3일(수)에 기구 안전성 인증을 득하였다.

- 계류식 가스기구는 열기구와 달리 비인화성 헬륨가스를 사용하고, 기구 몸체와 지면을 케이블로 연결해 수직 비행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뛰어나다. 또한 현재 헝가리, 프랑스, 아랍에미리트 등 다양한 관광 선진 국가에서도 대표적인 랜드마크로서 운영 중인 시설이다.
- 서울시는 서울관광재단과 함께 오는 8월 22일(목)까지 서울시민 2,500명을 초청해 ‘서울달’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사전 이용 의견을 수렴하여 8월 23일(금) 정식으로 개장할 계획이다.
 - 시민초청은 각 자치구별로(25개구, 100명씩) 한강 및 여의도공원과 관련한 시민들의 사연을 받아 선정해 무료 탑승권 체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시는 탑승체험에 참여한 시민 이용 의견을 바탕으로 운영 방식 등을 보완해 8월 23일(금)부터 정식운영(유료)을 진행할 계획이다.

※ 탑승료 기준(8.23. 정식개장 이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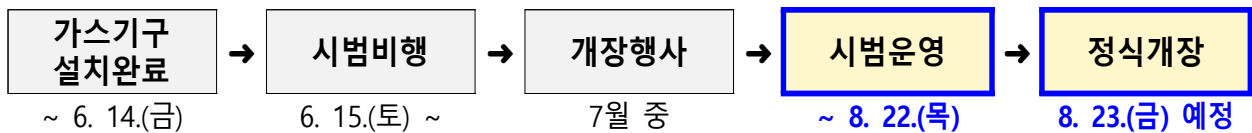
구분	금액(원)	비고
대인	25,000	- 대인(만 19세~만 64세)
소인/경로	20,000	- 소인(36개월~만 18세), 경로(만 65세 이상)
장애인/국가유공자	30% 할인	- 대인 제외 모든 입장권 구매 시 증빙 제출 필수
단체(20인 이상)	10% 할인	※ 신분증/증빙서류 등 사전 제시
기후동행카드	10% 할인	- 중복할인 불가

- 한편, 시는 ‘서울달’이 설치된 여의도공원의 기존 녹지환경을 보존하고 더욱 풍성한 생태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수목이식 및 정원 신규 조성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 사업부지 내 기존 수목(관목 13주, 교목 약 200주)은 전문가(나무의사)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인근 부지로 전량 이식해 공원생태를 유지하였다. 또한 개장을 기념해 매력정원(가든)을 새롭게 조성하여 수국 등 총 29종 5천여종의 과목을 추가로 식재하는 등 공원과 어우러지는 ‘서울달’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서울달 탐승현장 인근에는 탐승자를 위한 안전교육실과 함께 서울굿즈 홍보 공간이 조성되어 서울시의 브랜드 슬로건인 ‘서울마이소울(SEOUL MY SOUL)’을 활용한 티셔츠, 다회용컵 등 다양한 상품들이 전시될 계획이다.
-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인증 획득은 시민과 관광객이 서울달을 안전하게 믿고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본다”라며, “앞으로 시범운영 기간동안 안전관리에 철저히 집중해 운영하고, 서울시민은 물론 외국인 대상으로도 홍보해 서울달이 글로벌 명소로 부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서울달을 타면 한강 130M 상공 위에서 도시를 한눈에 담을 수 있어 가족, 친구 등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안전을 최우선하기 위해 철저히 점검을 진행해 인증을 받았으니 시범운영 동안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이용 의견을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업개요

- 사업명: 서울달 (영문명: SEOULDAL)
- 사업내용: 서울만의 매력인 한강과 도심야경을 즐길 수 있는 계류식 가스기구 설치·운영
 - 달모양의 헬륨가스기구를 제작·설치하여 **한강 중심 야간관광 랜드마크** 조성
 - **최대 130M 높이 수직비행**하여 여의도 고층빌딩 속 매력적인 서울야경 체험
- 위치/면적: 여의도공원(영등포구 여의도동 2) / 3,305㎡(1,000평)
- 추진개요: '24. 1~6월(설치) / '24년 7~8월(임시운영) ※ 8. 23.(금) 정식개장 예정



시범운영 계획

- 탑승대상 : 지역주민(자치구별 선정 예정) 등
- 운영시기 : '24. 7월 중 ~ 8. 22.(목)

- 추진주체: 서울시(설치) / 서울관광재단(운영)



(사진 1) 서울달 전경 (낮)



(사진 2) 서울달 전경 (밤)

□ **운영개요** ※ 8. 23.(금) 정식개장 이후 적용

- 운영일정: 화~일 12:00~22:00, 1일 10시간 운영(매주 월요일 시설점검 휴무)
- 비행내용: 130m 수직비행, 1회 15분 소요, 최대 탑승 정원 30명
- 탑 승 료: 성인 25천원, 소인·경로 20천원

구분	금액(원)	비고
대인	25,000	- 대인(만 19세~만 64세) - 소인(36개월~만 18세), 경로(만 65세 이상) - 대인 제외 모든 입장권 구매 시 증빙 제출 필수 ※ 신분증/증빙서류 등 사전 제시 - 중복할인 불가
소인/경로	20,000	
장애인/국가유공자	30% 할인	
단체(20인 이상)	10% 할인	
기후동행카드	10% 할인	

○ 가스기구 안전성 검증 : **안전성 확보**

구 분	계류식 가스기구	열기구
작동원리	헬륨가스 활용 (불활성으로 인체 무해 , 비인화성으로 폭발 우려 없음)	프로판가스 활용 (인화성으로 폭발 우려)
비행방법	계류식 비행 (날씨영향 비교적 낮아 안전운영 가능)	자유비행 (날씨영향 크게 받아 위험성 높음)
유사시 대응	기낭 손상되더라도 헬륨가스 유실에 수시간 소요되어 비상착륙 가능	기낭 손상 시 대응 어려워 사고 발생 가능 ※ 텍사스(2016), 제주(2018) 등

- (국제) 유럽·미국 등 글로벌 안전 규정·규격 준수
 - ▶ 유럽 항공안전국 규정 Joint Aviation Regulation(JAR 21) 준수
 - ▶ 유럽 공업규격(European Standard) 준수
 - ▶ 미연방항공청(FAA) 검사규정 'FAR Part 21' 준수
- (국내) 「항공안전법」에 따른 안전성 인증(7.3. 항공안전기술원 인증)
 - ▶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적합 여부, 설계·제작 기록 적정성, 장치의 상태 및 비행성능 등 확인